

---

# 주요국 예산안 - 프랑스

---

2020. 12.

## 연구책임자

윤성주 센터장

송경호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이정인 선임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1. 경제 및 재정전망 .....	5
가. 경제전망 .....	5
나. 재정전망 .....	6
2. 예산기조 .....	12
3. 예산안 주요내용(PLF 2021) .....	13
가. 세입 .....	13
나. 세출 .....	14
4. 주요 재정정책 .....	16
가. 프랑스 활성화(Plan de relance) .....	16
나. 공공재정 관리 개선 .....	21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	23

## 프랑스

FY2021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출처

- PLF 2021(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1), 2020.9.28.
- Dossier de presse- Présentation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2021, 2020.9.28.
- Évaluations préalables deus articles du plf 2021, 2020.9.28.
-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1: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2020.9.28.
- LFSS 2021(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1), 2020.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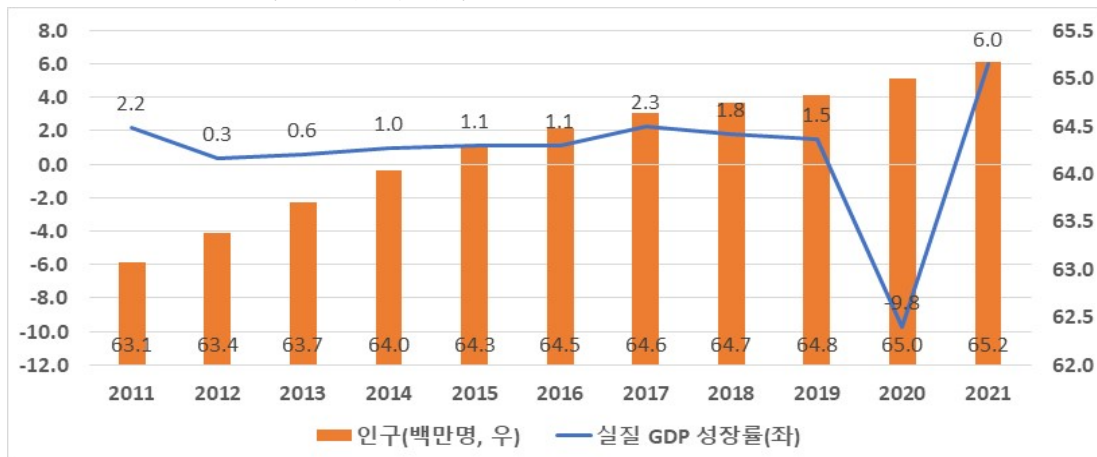
환율: 1유로 = 약 1,347.15원(2020년도 1월~11월 평균, 매매기준율)

경제규모 : 2020년 추정치 경상GDP 2조 5,514억달러(IMF)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 2019년 기준 64.5%(World Bank)

인구 : 약 6,493만명(2020년 기준, IMF)

실질 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및 전망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0, 검색일자: 2020.12.11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성장)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프랑스의 2020년 경제성장률은 -10%를 기록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지원 조치로 2021년에는 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전망) 거시경제 악화와 대규모 지원 조치로 인해 재정전망은 크게 악화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20년 -10.2%를 기록하고, 2021년에는 다소 회복되어 -6.7%를 기록할 전망

□ 예산기조

- 2021년 예산법안은 코로나19와 2020년의 급격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대응을 반영함
- 2020년 세 번의 수정예산법안 편성으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했고, 2021년에는 프랑스 활성화(Plan de relance) 계획의 이행으로 경제 회복을 가속화함

□ 주요재정정책

- 2021년 프랑스의 예산법안은 2022년까지 1,000억유로 규모의 프랑스 활성화 계획을 담고 있음
  - 프랑스 경제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 투자를 통해 수요를 빠르게 회복시킴
  - 사회적 포용성 강화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2020.3.18.	FY2020 수정예산법안(PLFR 2020) 발표
2020.4.15.	FY2020 2차 수정예산법안(PLFR 2020-2) 발표
2020.4.15.	2020 안정화 프로그램(programme de stabilité) 발표
2020.5.2.	FY2019 결산보고서 발표
2020.6.10.	FY2020 3차 수정예산법안(PLFR 2020-3) 발표
2020.9.3.	경기부양책 ‘프랑스 활성화(Plan de relance)’ 발표
2020.9.28.	FY2021 예산법안(PLF: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1) 발표

## 1. 경제 및 재정전망

### 가. 경제전망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프랑스의 2020년 경제성장률은 -10%를 기록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지원 조치로 2021년에는 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다소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고, 강력한 봉쇄조치 해제 이후 경제활동과 소비는 빠르게 회복됨
    - 8월 프랑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GDP는 위기 이전 수준의 95% 정도 수준으로 회복함
    - 강력한 지원 조치로 가구 소득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음
  - 경기부양책으로 2021년 프랑스는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2022년에 위기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가계 소비가 급격하게 하락(-8%)한 이후 2021년에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가계 구매력이 다시 상승하고 소비가 반등(6.2%)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부터 강세를 이어온 기업투자는 2020년 불확실성의 증가로 감소하다, 2021년 다시 성장을 기록할 전망
  - 유가 하락과 수요 감소로 인해 물가상승률은 2020년 0.5%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2021년에는 0.7%로 증가할 전망

<표 1> 거시경제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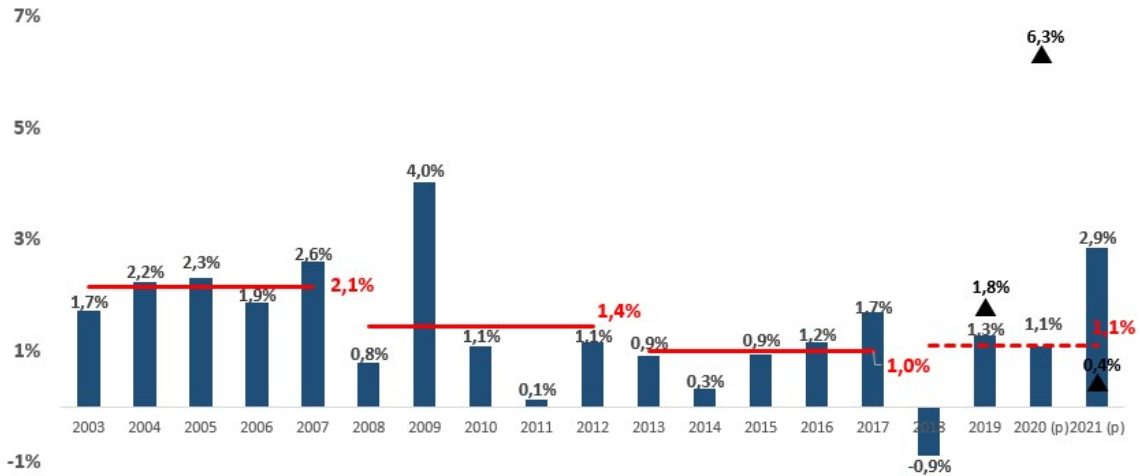
구 분	2020년 6월 예산정책심의(débat d'orientation des finances publiques: DOFP)		2021년 예산안	
	2020	2021	2020	2021
GDP성장률 (Produit intérieur brut)	-11.0	8.0	-10.0	8.0
가계소비지출(Dépense de consommation des ménages)	-10.0	8.0	-8.0	6.2
총고정자본형성(Formation brute de capital fixe)	-19.3	-	-14.5	14.9
수입(Importations)	-15.5	-	-11.5	8.2
수출(Exportations)	-15.5	-	-18.5	12.6

자료: 프랑스 재무부, *Rapport économique · social et financier*, 2020, p.52

## 나. 재정전망

- (2020년 재정지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조치로 2020년 세출은 본예산 대비 469억유로 증가한 3,846억유로로 전망됨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보건 위기 대응 비상계획(Plan d'urgence face à la crise sanitaire) 미션에 427억유로가 투입됨
  - 전년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조치를 제외할 경우 1.1%이며, 포함할 경우 6.3%로 나타남
- (2021년 재정지출) 2021년 세출은 2020년보다 59억유로 감소한 3,787억유로로 전망됨
  - 2021년에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미션 지출인 프랑스 활성화 계획(Plan de relance)에 220억유로를 지원함

[그림 1] 재정지출 증가율 추이 및 전망



주: 코로나19 지원 조치와 프랑스 활성화 계획이 제외된 수치는 막대 그래프, 포함된 수치는 ▲로 나타나며, 빨간색 선은 5개년 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프랑스 재무부,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1: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2020. p. 89.

□ (2020년 재정수입) 2020년 세입은 2,468억유로로 2020년 본예산과 비교해 462억유로 감소할 전망

- 본예산 대비 2020년 법인세는 183억 감소, 부가가치세는 147억유로 감소, 소득세는 28억유로 감소할 전망
- 봉쇄 기간 동안 에너지 소비의 급감으로 에너지제품소비세(TICPE)는 본예산 대비 48억유로 감소할 전망

□ (2021년 재정수입) 2021년 세입은 2,712억유로로 2020년 대비 244억유로 증가할 전망

- 2020년과 비교해 2021년 소득세는 23억유로, 법인세는 79억유로 증가할 전망
- 에너지제품소비세(TICPE)는 소비 반등으로 105억유로 증가할 전망

<표 2> 2021년 예산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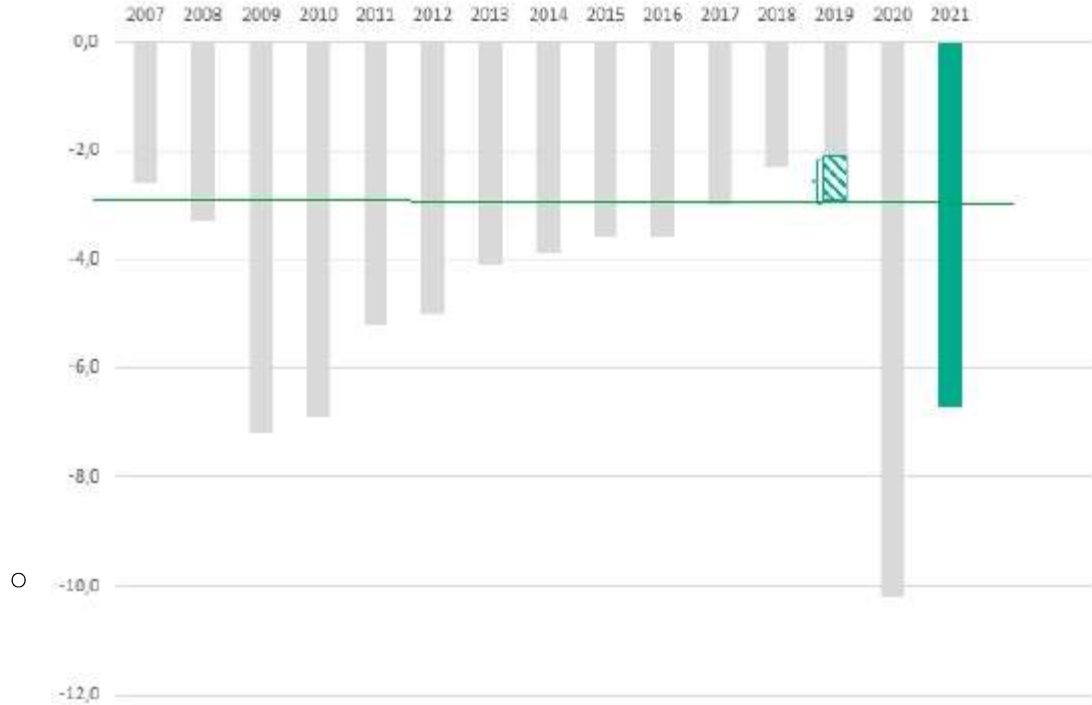
(단위: 십억유로)

구 분	2020 본예산	2020 수정예산	2020 전망	2021 예산법안	2020~2021 차이
재정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et PSR)	400.4	460.4	450.2	448.8	-1.4
세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337.7	394.7	384.6	378.7	-6.0
부처별 지출(Crédits des ministères)	253.2	259.8	259.8	270.6	10.8
미래를 위한 투자 미션(Mission "Investissements d'avenir")	2.1	2.1	2.1	4.0	1.9
보건 위기 대응 비상계획(Mission "Plan d'urgence face à la crise sanitaire")	0.0	52.4	42.7	0.0	-42.7
프랑스 활성화 계획(Mission "Plan de relance")	0.0	0.0	0.0	22.0	22.0
프랑스 개발청 자금 지원 (Renforcement des fonds propres de l'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0.0	0.0	0.0	1.0	1.0
부채비용(Charge de la dette (yc SNCF))	38.6	36.6	36.2	37.1	0.9
연금기여금액(Contributions au CAS "Pensions")	43.8	43.8	43.8	44.0	0.2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62.7	65.7	65.5	70.1	4.6
지방정부보조금(Prélèvement au prof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41.2	42.3	42.2	43.2	1.1
EU보조금(Prélèvement au profit de l'Union européenne)	21.5	23.4	23.4	26.9	3.5
재정수입(Recettes de l'Etat)	307.4	242.6	263.1	296.1	33.0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nettes)	293.0	227.2	246.8	271.2	24.4
소득세(impôt net sur le revenu)	75.5	69.5	72.7	74.9	2.3
법인세(impôt net sur les sociétés)	48.2	15.7	29.9	37.8	7.9
에너지제품소비세(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	12.5	10.6	7.8	18.3	10.5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 nette)	126.0	106.2	111.3	89.0	-22.4
기타 세입(Autres recettes fiscales nettes)	30.8	25.1	25.1	51.2	26.1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14.4	15.4	16.3	24.9	8.7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 hors FMI)	-0.1	-7.1	-7.9	-0.1	7.9
부속예산(Solde des budgets annexes)	0.0	-0.2	-0.2	0.0	0.1
총재정수지(Solde État - hors FMI)	-93.1	-225.1	-195.2	-152.8	42.4

출처: 프랑스 재무부, PLF 2021

- (재정수지) 거시경제 악화와 대규모 지원 조치로 인해 재정전망은 크게 악화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20년 -10.2%를 기록하고, 2021년에는 다소 회복되어 -6.7%를 기록할 전망
  - 프랑스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2018년(-2.3%)과 2019년(-2.1%)에 GDP 대비 재정수지 -3%이하를 달성하였으나, 2020년에는 경제 활동 감소와 가계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돼 GDP 대비 -10.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재정적자는 1,952억유로로, 2020년 본예산 전망과 비교해 1,020억유로 악화될 전망
    - 2020년 7월 채택된 3차 수정예산법과 비교하면 2020년 재정적자 전망은 299억유로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됨
  - 프랑스 활성화 등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으로 2021년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6.7%로 전망되며, 이는 2020년과 비교할 때 3.5%p 감소한 수준
    - 2021년 재정적자는 1,528억유로로 2020년 전망에 비해 424억유로 감소할 전망
-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0년 117.5%로 전년 대비 19.4%p 증가할 전망
  - 2021년에는 경제 회복으로 인해 116.2%로 감소할 전망

[그림 2] 프랑스의 재정적자



주: 2019년의 빚금 영역은 경쟁력·고용을 위한 세액공제(CICE) 관련 비용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재정적자는 3.1%, 제외할 경우 2.3%

자료: 프랑스 재무부, 2021년 예산법안(PLF 2021: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1), 2020, p. 9

<표 3> FY2021 일반정부 재정수지 전망

구분	(단위: GDP 대비 %)		
	2019 결산	2020 전망	2021 전망
2021년 예산법안(2020.9)			
구조적 수지(Solde structurel)	-2.2	-1.2	-3.6
경기조정치(Solde conjoncturel)	0.2	-6.5	-2.8
임시 및 특별조치(Mesures ponctuelles et temporaires)	-1.0	-2.6	-0.2
재정수지(Solde effectif)	-3.0	-10.2	-6.7

자료: 프랑스 재무부, PLF 2021: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1, 2020

<참고 1> 2020년 수정예산법안(PLFR: Projet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2020)

■ FY2020 4차 수정예산법안(PLFR 4: Projet de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pour 2020-4) 발표(2020.11.4.)<sup>1)2)</sup>

- 2020년 1~3차 수정예산법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조치들을 포함한 반면 4차 수정예산법안은 예산 관리를 지원하고 위기 대응의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됨
  - (경제전망) 2020년 경제성장률은 2021년 예산법안 전망의 -10%보다 1%p 악화된 -11%로 3차 수정예산법의 전망치와 동일함
    - \* 2020년 본예산에서 전망한 수치는 1.3%
  - (재정전망) 2020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1년 예산법안 전망의 10.2% 보다 1.1%p 악화된 11.3%로 전망됨
    - \* 총재정수지는 -2,229억유로로 2021년 예산법안 전망보다 크게 악화될 전망
- ※ 2020년 4차 수정예산법안(2020.11.4.)의 전망치는 2021년 예산법안(2020.9.28.) 발표 이후의 경제 상황을 반영함

<표 참고> 2020년 4차 수정예산법안

(단위: 십억유로)

구 분	2020 본예산	2020 3차 수정예산	2020 4차 수정예산안	2021 예산법안
재정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et PSR)	400.4	460.4	478.5	448.8
세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337.7	394.7	431.1	378.7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62.7	65.7	65.4	70.1
재정수입(Recettes de l'Etat)	307.4	242.6	265.6	296.1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nettes)	293.0	227.2	249.3	271.2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14.4	15.4	16.3	24.9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 hors FMI)	-0.1	-7.1	-9.9	-0.1
부속예산(Solde des budgets annexes)	0.0	-0.2	-0.1	0.0
총재정수지(Solde État - hors FMI)	-93.1	-225.1	-222.9	-152.8

출처: 프랑스 재무부, PLFR 2020-4

1) 프랑스 예산국,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LFR 4) pour 2020, 2020.11.4.

[https://www.budget.gouv.fr/files/uploads/extract/2020/PLFR4/PLFR\\_2020-4-W.pdf](https://www.budget.gouv.fr/files/uploads/extract/2020/PLFR4/PLFR_2020-4-W.pdf)

2) 프랑스의 수정예산법안은 회계연도 말의 보완법으로 지출총량을 규정에 맞추고 초기예산법의 집행과 관련된 새로운 지출을 개시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sup>1)</sup>

1) 김은경, 『프랑스의 재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10, p.36

## 2. 예산기조

- 2021년 예산법안은 코로나19와 2020년의 급격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대응을 반영함
  - 2020년 세 번의 수정예산법안 편성으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했고, 2021년에는 프랑스 활성화 계획(Plan de relance)의 이행으로 경제 회복을 가속화함
- 1,000억유로 규모의 프랑스 활성화 계획은 프랑스 경제의 미래 과제에 대한 대응과 경기 회복을 지원함
  -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모델을 위해 투자함
    - 생태학적 전환(ecological transition) 가속화에 300억유로 투자
      - 공공 및 민간 건물의 에너지 혁신, 산업의 탈탄소화, 수소부문 발전 등에 투자
  -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함
    - 생산세(impôts de production)<sup>2)</sup> 인하 및 중소기업 수출 지원
  -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통합을 지원함

---

2) 기업부가 가치금, 산업 시설에 대한 부동산세, 기업토지세 등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의 4장 주요 재정정책 가. 프랑스 활성화 2) 기업 경쟁력 강화 부분을 참고

### 3. 예산안 주요내용(PLF 2021)

- 2021년 예산법안(PLF 2021: projet de loi de finances 2021)은 2020년 9월 28일에 발표됨<sup>3)</sup>

#### 가. 세입

- 2021년 재정수입은 2,961억유로로 2020년 전망치 대비 330억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조세수입은 2,712억유로로 경기회복을 반영해 전년대비 244억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경기회복에 따른 과세소득의 증가로 소득세는 22억유로 증가한 749억유로로 전망됨
- 법인세율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세수 하락 요인을 기업 수익에 대한 전망개선으로 인한 세수 증대가 상쇄하여 법인세는 79억유로 증가한 378억유로로 전망됨
- 에너지제품소비세(TICPE)는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105억유로 증가한 183억유로로 전망됨
- 부가가치세는 소비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보다 주택세 단계적 폐지\*에 대해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전한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223억유로 감소한 890억유로로 전망됨

\* 주택세(taxe d'habitation)는 2018년부터 단계적 폐지가 시행되어 2023년까지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며, 주택세 폐지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는 부가가치세의 분배를 통해 일부 보전함

- 2021년 세외수입은 2020년과 비교해 87억유로 증가한 249억유로로 전망됨

3)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1, 2020.9.28.

<https://www.economie.gouv.fr/projet-loi-de-finances-2021>

예산국, Présentation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1, 2020.9.28.

<https://www.budget.gouv.fr/reperes/budget/articles/presentation-du-projet-de-loi-de-finances-pour-2021>

## 나. 세출

- 2021년 조정가능 지출(dépenses pilotables)\*은 2,901억유로로 2020년 3차 수정예산법 대비 103억유로 증가할 전망

\* 조정가능 지출은 일반 예산의 세출, 조정가능 특별회계의 세출 등 정부가 직접 통제 가능한 지출을 의미

- 2021년 예산법안의 미션 지출은 2020년 본예산 대비 354억유로(13.6%) 증가한 2,965억유로

- 국방(défense) 미션은 군전력증강법(Loi de Programmation Militaire: LPM)에 따라 2020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에도 전년 보다 17억유로 증가한 392억유로
- 학교교육(Enseignement scolaire) 미션은 16억유로 증가한 549억유로
  - 교육 부문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
  -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교육 보조원 추가 채용을 통해 교육의 포용성 강화
- 공공 투자를 통해 수요를 빠르게 회복하고 프랑스의 친환경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프랑스 활성화(Plan de relance) 미션이 신설되어 220억유로가 배정됨
- 회복 계획의 일환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issements d'avenir) 미션은 18억유로 증가한 40억유로가 배정됨
  - 프랑스개발청 (French Agency for Development, AFD)의 자체 자금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포함
- 2020년 1차 수정예산법에서 신설되어 3차 수정예산법 기준 524억유로가 배정되었던 보건 위기 대응 비상계획(Plan d'urgence face à la crise sanitaire) 미션은 2021년 예산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음

<표 4> 2021 미션별 세출 내역

(단위: 십억유로)

33개 미션 (지불예산(credit de paiement, CP)) <sup>1)</sup>	2020 본예산 (A)	2021 예산법안 (B)	B/A (%)
외교(Action extérieure de l'Etat)	2.7	2.8	3.7
일반공공행정(Administration générale et territoriale de l'Etat)	3.2	3.5	9.4
농업·임업·수산업(Agriculture, alimentation, forêt et affaires rurales)	2.7	2.7	0.0
정부개발원조(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3.3	3.9	18.2
퇴역군인지원(Anciens combattants, mémoire et liens avec la nation)	2.2	2.1	-4.5
영토통일(Cohésion des territoires)	15.1	16.0	6.0
정부위원회 및 행정재판(Conseil et contrôle de l'Etat)	0.6	0.6	0.0
예비비(Crédits non répartis)	0.1	0.3	200.0
문화(Culture)	2.8	3.0	7.1
국방(Défense)	37.5	39.2	4.5
국가정책방향(Direction de l'action du Gouvernement)	0.8	0.8	0.0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Ecologie, développement et mobilité durables)	17.7	19.2	8.5
경제(Economie)	2.1	2.4	14.3
정부채정관리·부채관리·국채발행 등(Engagements financiers de l'Etat)	0.4	2.8	600.0
학교교육(Enseignement scolaire)	53.3	54.9	3.0
공공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 예산 및 공공개혁 관련 정책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et des ressources humaines)	7.6	7.5	-1.3
이민 및 통합정책(Immigration, asile et intégration)	1.8	1.8	0.0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issements d'avenir)	2.1	4.0	90.5
정의(Justice)	7.6	8.2	7.9
언론(Médias, livre et industries culturelles)	0.6	0.6	0.0
프랑스령 국가들에 대한 지원(Outre-mer)	2.3	2.4	4.3
의회·헌법위원회 등(Pouvoirs publics)	1.0	1.0	0.0
R&D 및 고등교육(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28.4	28.3	-0.4
복지 및 은퇴자 지원(Régimes sociaux et de retraite)	6.2	6.2	0.0
보건 위기 대응 비상계획(Plan d'urgence face à la crise sanitaire)	0.0	0.0	-
프랑스 활성화(Plan de relance)	0.0	22.0	-
지방재정지원(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3.5	3.9	11.4
보건의료(Santé)	1.1	1.3	18.2
치안(Sécurité)	13.7	13.9	1.5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26.1	26.0	-0.4
체육 및 건강·청소년 지원(Sport, jeunesse et vie associative)	1.2	1.3	8.3
공공부문 개혁(Transformation et fonction publiques)	0.6	0.7	16.7
노동 및 고용(Travail et emploi)	12.8	13.2	3.1
<b>미션별 합계</b>	<b>261.1</b>	<b>296.5</b>	<b>13.6</b>

주: 1) 투입승인(AE)은 투자될 수 있는 예산지출상한액이며, 지불예산(CP)은 투입승인의 한도 내에서 체결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동안 지출명령이 될 수 있거나 지불될 수 있는 지출상한액을 의미(김은경, 『프랑스의 재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10, p.80

자료: 프랑스 재무부, Dossier de presse :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1, 2020.9.28.

#### 4. 주요 재정정책

##### 가. 프랑스 활성화(Plan de relance)

- 2021년 프랑스의 예산법안은 2022년까지 1,000억유로 규모의 프랑스 활성화(Plan de relance) 계획을 담고 있음
  - 2020년 3차 수정예산법의 150억유로를 포함해 2021년 예산법안의 860억유로가 회복 계획의 일환으로 투입될 예정
  - 프랑스 활성화 계획은 다음의 세 가지 우선순위로 이뤄짐
    - 프랑스 경제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 사회적 포용성 강화

##### 1) 녹색 성장 지원

- 공공 및 민간 건물의 에너지 혁신 가속화를 위해 지원
  - 민간부문에서는 에너지전환 세액공제(CITE: Crédit d'impôt pour la Transition Energétique)<sup>4)</sup>를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Ma Prime Rénov'(my premium renovation)”<sup>5)</sup>로 전환하여 2021~2022년에 약 20억 유로를 지원
  - 공공부문 건물의 열 효율 개선을 위해 40억유로를 지원
- 프랑스의 탈탄소화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적 전환의 조화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진행됨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2억유로를 투자해 산업 기업의 배출량 감소를 위해 지

4) 에너지효율 개선공사(지붕 단열공사, 보일러 교체 등) 비용의 30%를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

5) 주택의 단열 개선, 보일러 교체, 효율적 환기 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0 참고

원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탄소 배출량이 적은 장비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장비보다 비싸고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 구입에 지원하여 탄소배출량을 낮출 수 있도록 함
- 농업 부문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총 12억유로를 지원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생산 시스템 개발을 촉진하는 등 농업 및 식품 시스템의 생태학적 전환 가속화에 4억유로 지원
  - 도축장 현대화와 동물 보호소 지원 등 동물복지 강화에 2억 5천만유로 지원
  - 식물성 단백질 공급 확대에 1억유로 지원
  - 농업 장비 개선 및 개발에 2억 5천만유로 지원
  - 기후 변화에 대한 산림 산업의 적응 및 산림 복원에 2억유로 지원
- 재생가능한 저탄소·수소 부문의 개발은 경제 회복 계획의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으로 20억유로의 예산을 투입
  - 산업 온실가스 배출 감축, 수소차량 개발 지원, 연구 지원의 세 가지 우선순위로 이뤄짐
  - 경제 전체의 탈탄소화 및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의 확대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순환경제(Economie circulaire)를 위해 폐기물 생산을 제한하고 재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5억유로를 지원
  - 재활용 센터의 현대화, 바이오 에너지 개발 등을 지원
- 친환경 차량 구매 지원 강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개발 장려
  - 전기차 구입에 대한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지속
    - 오래되고 연비가 낮은 자동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구매자에 지급하는 전환

보조금 5,000유로 신설

- 전기차 구매자에 지급하는 보조금 6,000유로에서 7,000유로로 인상

○ 운송 분야의 친환경차 구입에 대한 재정 지원

○ 주거용 주차 공간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세금공제 도입

□ 철도 및 지하철·트램·버스 등의 대중교통 개발 지원

○ 프랑스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철도 부문에 47억유로를 지원해 승객 운송과 화물 운송에서 모두 도로 이용을 대체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이 되도록 함

○ 특히 가장 밀집된 지역의 도로 상황을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에 9천만유로 지원

## 2) 기업 경쟁력 강화

□ 2021년 100억유로를 포함해 프랑스 활성화 계획 기간 동안 200억유로의 생산세 (impôts de production) 인하

○ 프랑스의 생산세는 기업의 생산 요소(급여, 투자, 생산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산업 분야에서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였기 때문에 생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인하

- 기업부가가치 부담금(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 CVAE) 납부 대상 기업에 대해 납부 세액 절반 감액에 총 72억유로

- 약 32,000개 기업의 산업 시설에 대한 부동산세(Taxe Foncière sur les Propriétés Bâties: TFPB)와 기업토지세(composée de la cotisa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 CFE) 감면에 각각 17억 5천만유로와 15억유로

- 지역경제기여금(Contribution Economique Territoriale: CET) 납부 대상 기업의 세율을 3%에서 2%로 인하

○ 생산세 인하의 효과로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음

□ 기업활동의 재개를 위한 지원

- 대출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발전을 도모함
  - 프랑스 경제의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한 펀드에 대해 1억 5천만유로의 대출을 보증
- 프랑스 국영 투자은행(BPI France)의 보증 기금 강화를 위해 2021년 3억 2,700만유로, 2022년 1억 3,700만유로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대출 접근을 용이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무역시장 활동 재개를 지원하고 2018~2019년의 수출 호조를 이어가기 위해 2020~2022년의 복구 계획 기간 동안 2억 4,700만유로 지원

□ 프랑스 경제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탄력성을 지원

- 민간 R&D 부문의 고용 유지를 위해 2021년부터 총 3억 유로 투입
- 중소기업의 생산 장비 디지털화 및 현대화에 총 3억 8,500만유로 지원
  - 또한 미래 산업 기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함

3) 사회적 포용성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인 부분실업제도(Chômage partiel(activité partielle))\*를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보존할 수 있었고, 관련 정책을 계속 시행할 예정

\* 부분실업이란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의 일정 급여를 보장(세전 급여의 70%)하도록 하는 제도

- 기존의 부분실업제도가 일시적인 활동 감소에 대한 지원이었던 데 반해, 장기적 부분활동계획(d'activité partielle de longue durée: APLD)을 도입해 부분실업에 대한 소득보전이 최대 24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함
- 부분실업제도의 총 예상 비용은 2021년 66억유로로, 전체 재원 중 44억유로는 정부가, 22억유로는 실업보험기금(Unedic)이 부담함

- 고용 지원은 2017년부터 정부의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이었고 코로나19 이후 더욱 중요해졌으며, 특히 청년의 고용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화함
  - 부분 고용 상태의 청년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고용 기금(Fonds national pour l'emploi: FNE)을 통한 10억유로 지원
    - 22만명의 청년들에 대해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훈련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 견습과정(d'apprentissage)에 있는 청년 및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의 고용을 위한 지원에 총 20억유로 지원
  -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7억 5천만유로의 보조금 지급
-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저소득 가구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신학기 수당<sup>6)</sup>을 약 100유로 인상
    - 6~10세 학생에 대해 368.84유로에서 469.97유로로 인상
    - 11~14세 학생에 대해 389.19유로에서 490.39유로로 인상
    - 15~18세 학생에 대해 402.67유로에서 503.91유로로 인상
  -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수용 시설 건설 등에 1억유로 지원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 2021년 4억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해 지역의 산업 육성을 강화
  -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를 위해 2021년 2억 5천만 유로를 지원

---

6) l'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저소득층의 학비 충당을 위한 지원 제도

## 나. 공공재정 관리 개선

- 세제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2021년 7개의 세금을 폐지함
  - 2019년부터 저수익 세금을 없애는 다년간의 프로그램을 시작해 현재까지 46개의 세금이 폐지되었고, 2021년에는 7개의 소규모 세금을 추가적으로 폐지함<sup>7)</sup>
  - 또한 여러 세금 관리를 단순화하고 조세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함
- 예산의 명확성을 강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녹색예산을 예산안에 포함함
  - 에너지 서비스 관련 지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전환 특별 할당 계정을 2021년 폐지하고 관련 지출을 일반 회계에 포함시킴
  - 예산안에 포함된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녹색예산이 처음으로 예산안의 부록으로 포함됨

---

7) 기름 및 윤활제(huiles et préparations lubrifiantes)에 적용되는 오염활동에 대한 세금(taxe générale sur les activités polluantes: TGAP), 선상 카지노(casinos flottants)에 대한 세금, 트럭 운전 기사가 사용하는 무선 주파수에 대한 세금 등이 포함됨

## <참고 2> 녹색 예산(budget vert)

- 2021년 예산안은 친환경 예산안으로 환경 영향에 따른 등급 평가를 제시함
  - 녹색 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Paris Collaborative On Green Budgeting)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자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됨
  - 기후 변화 대응,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위험 대비, 수자원 관리, 순환경제 및 폐기물, 오염 방지, 생물 다양성 및 보호 등 총 6가지 환경 목표와 관련하여 2021년 예산안에 담긴 정책들의 등급을 제시함
  - 2021년 예산안에서 6가지 환경 목표 중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적어도 불리하지 않은 지출은 381억유로로 나타나며, 재생에너지 개발(69억유로)이 포함됨
  - 2021년 예산안에서 한 가지 이상의 환경 목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다른 환경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혼합비용은 47억유로로 나타나며, 운송·철도와 관련한 지출을 포함함
  - 한 가지 이상의 환경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용은 100억유로로 나타나며, 에너지 소비에 대한 세금 면제 또는 감면(51억유로)를 포함함

##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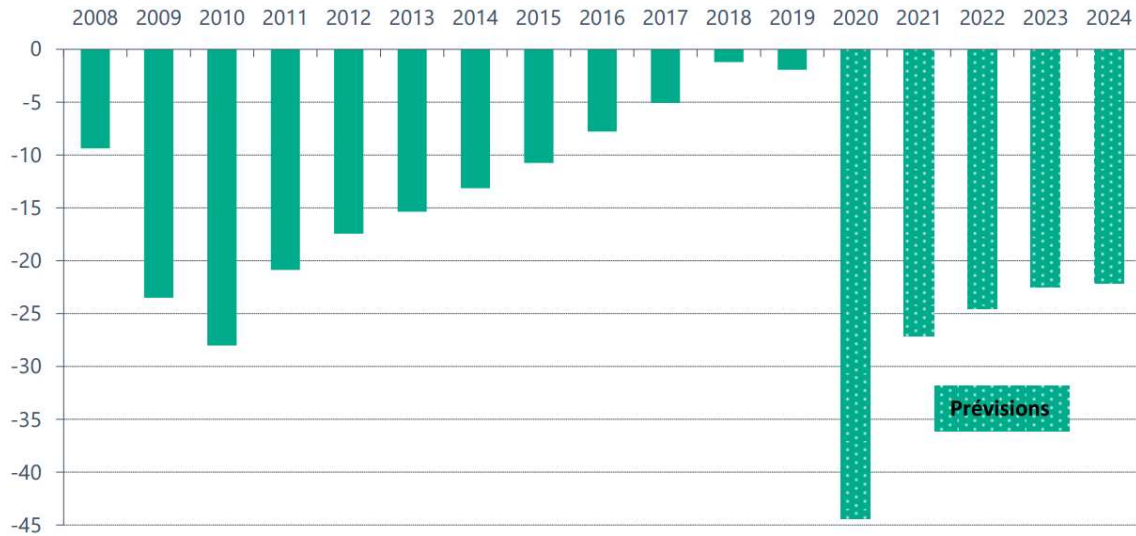
- 사회보장부문의 재정이 보건 위기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어 2020년 재정적자는 444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도에 대한 예측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으로, 건강 상황에 대한 변화와 경제 회복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회보장부문의 수입은 위기 이전의 예측 수준보다 낮을 수 있고, 지출은 위기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
  - 사회보장부문의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예상되어, 2024년까지 200억유로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의료 관계자들과의 공공의료 부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담화에서 도출된 약속의 이행 사항이 포함됨
  - 병원 직원의 급여 재평가로 2020~2023년 동안 의료보험지출목표(ONDAM)<sup>8)</sup>가 88억유로 증가
  -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제외한 의료보험지출목표(ONDAM)는 2021년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보건 및 의료 관련 공공시설 복구 계획에 190억유로를 투자할 계획
  - 향후 2년 동안 원격 진료 개발에 대한 지원
- 사회보장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지출 관리 정책은 재정 균형을 다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가 2010년 280억유로에서 2019년 19억유로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20년 444억유로로 크게 증가함
  - 재정균형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 위기를 극복하고 프랑스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함

8) objectif national des dépenses d'assurance maladie. 1996년 지출 통제를 위해 제정된 제도로, 차년도 건강보험 지출 최대한도를 의미.

- 2021년 예산안의 강력한 경기 회복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2019년의 경제 수준으로 회복하고, 이후 사회보장 관련 지출 통제 경로에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임

[그림 3] 사회보장부문 총재정수지 추이

(단위: 십억유로)



주: 2020~2024년은 전망치

자료: 프랑스 재무부, *PLFSS 2021: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1*, p.45